



일본만화가 활개친다

일본만화가 보부도 당당하게 한 국시장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일본에서 기획된 문화부는 간단한 심의절차만 거치면 국내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 「드래곤」「아이리안」「복수의 권」「동물의 일본만화」 해외판이 붐으로 일으켜 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한 것과 심의를 통해 일본만화를 수입한다는 결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문화부〉의 이

경정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폐관을 통해 일본만화를 접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래곤」「아이리안」「동물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수준이 매우 높고, 유치하기는 않다. 「마치 한번의 만화와 영화를 동시에 볼 때처럼 재미있고 있고, 퍼포먼스 대회를 열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이다.

이렇듯 일본만화는 이미 국내독자들에게 한국만화가 보여 주지 못한 충격적이고 깨끗한(?) 맛을

보여 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밀듯 솟아나 들어온다면 국내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리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일본만화의 한국만화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예상되는 일본만화가 물려오게 되었으나, 이 후의 시대들은 물론 베스트셀러들이 들어서고 국내 대리인은 물론 출판권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대한 푸른 빛이 자국경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UIP영화 저작과 같은 국제영화시장의 확장화보다 더

의 관심과 지원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만화의 특성으로 차이들은 자주로운 창작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듯 불리한 조건에 놓인 한국만화 상대로 일본만화가 물려오게 되었으나, 이 후의 시대들은 물론 베스트셀러들이 들어서고 국내 대리인은 물론 출판권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대한 푸른 빛이 자국경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UIP영화 저작과 같은 국제영화시장의 확장화보다 더

수입 법적허용에 대한 조직적 대응 미흡

국내 만화가, 새로운 화법개발의 적극성

◇일본만화 수입의 법적 허용에 대한 국내 만화가들의 대응을 살펴본다

“왜곡된 「굿」의 참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벽에는 많은 대자주제에서 옛날 빛이 지어져 않은 새벽, 정오수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을 써 내려온 대자주제가 눈길을 끈다. 이 대자주제는 지난 4월 4일(목)에 열린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신규동아리 인증받은 3개 동아리 중 하나인 「민족극 연구회」「비나리」에서 제작한 것이다.

현재 외대내대에는 학술, 예기능, 체육부문과 많은 동아리들이 존재하지만 「굿」을 연구하는 동아리 「비나리」가 처음이다.

（인문·사회학）군을 만나

용인캠퍼스 신규동아리 민족극 연구회 「비나리」회장 김덕록

（인문·사회학）군을 만나

（인

그림 돋보기-개교 37주년 기념 외대 인사

설문 조사 결과

질문1: 외대에는 서울과 용인으로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용인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있는 캠퍼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퍼스는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외대라 생각한다.: 47명

분리되어 있고 교류가 넓고 있어 같은 학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80명

장기적인 안목에서 끊고 출마한 서울캠퍼스를 용인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47명

먼저는 관심이 없다.: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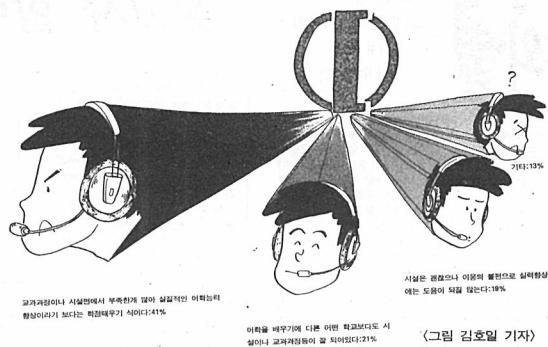
기타: 12명 무응답: 3명

무응답: 1명

질문2: 외국이 대학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때문에 학교를 잘 해보기 위해 외대를 들어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설문조사장소·일시: 서울·용인 캠퍼스, 4월 11일~13일까지

외대에서 이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설문은 팬이나 세간 등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학점 양상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38명

모르겠다.: 13명 기타: 12명

무응답: 3명

기타: 1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개교 37주년을 맞이하여



사학과 87학번
박현호군을 만나

서울 캠퍼스



생활면에서

캠퍼스가 좁아 시설이 부족하고, 소란스럽다.

학습면에서

도서관 열람실이 너무 부족하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용인 캠퍼스



생활면에서

등·하교 교통이 불편하다.



학습면에서

도서관이 하루 빨리 완공되어야

<싸이코 드라마 모임 안내>

심리극이란 개인의 내적 문제를 연극적 방법으로 제구성하여 자신을 배우고자 보다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의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경험을 전교생에게 보여주는 공개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장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심리극(PSYCHO DRAMA)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귀기울여 볼

시다-

① 모임 일정

5월: 죽 흥의 상황극을 이용한 저아트워크

6월: 심리극 이론 및 기법연구

심리극 전략

M-TCT-Group

7월: 상황극 및 죽 흥극

심리극의 기본연습

8월: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 연습

9월: 3회 공연

② 신청기간

1991. 4. 15 ~ 5. 3

③ 신청장소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학생 생활 연구소

교육실습안내

1991학년도 교육실습 일정 및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함.

- 아 래 -

1. 교육실습기간: 91.5.6(월) ~ 6.1(토) ~ 4주간

2. 교육실습학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 본인의 실습학교 배정은 '91.4.22 ~ 4.26(까지 서울캠퍼스-사범대학 교육과, 용인캠퍼스-교과부) 확인한 후 실습학교 조장(전화번호)과 명기된 실습생에게 연락바랍니다.

2) 각 실습학교 조장은 '91.4.26(금)까지 사범대학 교육과에서 실습학교 방문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지방에서 교육실습을 받기로 한 학생은 '91.4.19, 17:00까지 사범대학 교육과에서 실습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실습학교 배정 명단에 누락된 학생은 사범대학 교육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5) 실습학교 사전방문은 '91.5.3, 14:00까지 실습조장과 함께 실습생 전원이 방문하여 해당학교로부터 실습에 관한 교육을 받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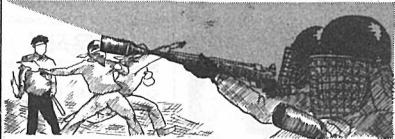
3. 칠고사항

1) 교육실습일자 대금 1,000원과 명절대금 1,000원을 (서울캠퍼스-사범대학 교육과, 용인캠퍼스-교과부) 납부한 후 교육실습일자와 명절을 수령하기 바랍니다.

2) 교육실습생 인적사항을 4월 17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장

4월의



1987년은 1년 12달 중에서 4번째 달, 혹은 봄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않는다. 1년의 3월 65일을 따져 보면 어느 바eur 지난 역사 속에서 쓰러진 기억을 갖지 않는 날이 있었지만 4월은 그들이 끌어온 것은 않은 그들이기에, 끌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고통과 악의 본질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들이기에 이전의 악압을 고통을 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리주는 그들이기에, 1년 3월 65일 중 꽃 한 번은 그들의 기억들을 피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4월 정신 계승하라」라는 구호를 들는다. 4월 정신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계승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독재 정권과 혐의(不疑)에 항거했던 그 이상은 포착되지는 않은 말인가? 아니다. 3·15부정 선거가 16살 어린 소년 김주일군의 친목한 시신 앞에서 선생들이 울부짖으며 외쳤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괴짜는 고작 30년이 지난 지금 더욱 더 무겁고 절박한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1960년 4월 19일, 「민주 역적 물아내자」 「피로 찾은 민주주의」

변·증·법

나약한 나에게 4월은

열혈의 돌이 되어 날아온다

정의로 사하자」 혜방이후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적 억압에 이렇게 항거하였던 대다수 민중들, 그 중에서 불의와 독재에 맞서 선봉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을 퇴위에 몰아내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

하였다. 그러나 그 혁명은 미안으로 꽂았고 끌어당겼다. 이승만은 더 강력한 반민족적 제재권은 4·19 민주 혁명의 결심을 무참히 짓밟아 비볐다.

1987년 4월, 대학의 첫 발을 떠는 농촌 대가 무었을 해야 할지 몰라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 다니며 대학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삼민 광장(지금의 노천극장)에서 열렸던 「4·19개념」 전투는 정권의 결의 대회는 신입생인 나에게 4·19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4·19가 오늘날의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가라는 학제적 질문을 거두기

에 충분했다.

선배들은 1960년의 4·19를 이야기하면서 불의에 피로써 맞았던 그때 민중들과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가 박정희 정권을 퇴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오늘날 더욱

에 4월은 다시금 열혈의 돌이 되어 날아온다.

아무 것도 모르고 군대에 갔고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개인주의 소설로 출판되어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과 저성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고, 미국내에서 「반미」 소설이라기보다는 「한전(反戰)」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강원도 춘천 근처의 작은 마을이 이 영화의 배경이다. 이곳에 유엔군이 들어오고, 어느날 밤 이런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젊은 부부 언어는 미국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사람이 마을에 암울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풀었다. 그 옥상에 밤마다 빛을 비쳤던 그녀는 현실을 음미로 바라보게 된 나를 깊이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둘러준다. 4·19는 반민족, 반민중적인 친미 자본가 정권, 이승만정권의 불의에 항거하여 떨쳐 일어선 민중의 분노였다.

4월은 미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내가 겁내기를 벗어 가는 도심처럼 「4월」은 때때로 끌어당겨 진나라를 찾거나, 한 무리의 슈퍼의 기억으로 앞으로 끌어피워야 할 민주주의 봄이다.

전 선 용
(동양·일어3)

로 펼쳐지는 모습들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다.

(눈빛퍼널 김5천원)

백두산의 꿈·상

『조성일』 뒤에 현준하는 조선족 시인 애니메이션의 시를 모은 책이다.

『죽어죽이 끌백련 죽었어도 간

악한 원쑤와 판가리하려니 틀어

긴 갈 늦지 않은 학일마사』(김용

룡의 「이바밀립의 슬소리」)

주로 백두산에 대한 노래와

시들을 그려낸 원작은 노래와 시

들을 그려낸 원작은 노래와 시